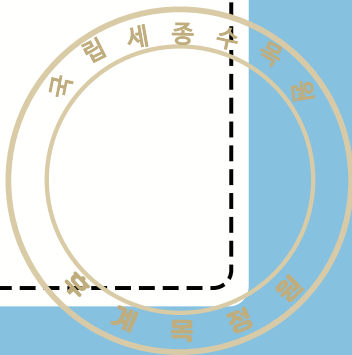


함께 즐기는 후계목 정원

후계목 빙고게임

1. 후계목정원 나무의 이름을 빙고칸에 적는다.
2. 순서를 정해 한 명씩 나무 이름을 말한다.
3. 다른 사람이 말한 나무와 같은 나무가 있다면 표시한다.
4. 빙고칸을 모두 표시한 사람은 빙고! 를 외친다.
5. 빙고를 외친 사람은 가장 마음에 드는 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후, 후계목정원의 스탬프를 찍는다.



후계목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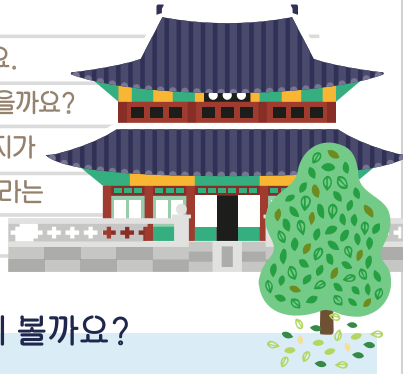
이야기를 따라 떠나는 역사 속 나무여행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무의 후손을 보존하며
사람들에게 나무의 역사를 보여주는 정원입니다.

이름 :

01. 창덕궁 회화나무 이야기

조선시대 궁궐인 창덕궁에는 다양한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문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바로 회화나무랍니다. 학자수라고도 불리는 회화나무는 가지가
 멀리 뻗는 특성을 따라 선비들의 지식이 멀리 뻗어나가길 바라는
 옛 조상들의 마음을 담아 심어졌다고 해요.



회화나무의 수형(나무의 전체적인 모양)을 감상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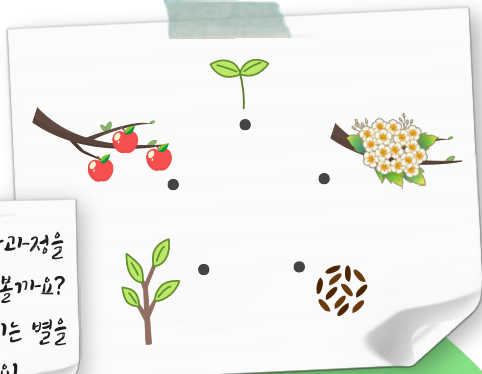
내가 정원사라면 어디에 회화나무를 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2. 뉴턴의 사과나무 이야기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정원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특!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질까?' 고민에 빠진 뉴턴은 한참을 생각하다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들어봤나요? 그 이론은 바로 정원에서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보고 발견한 거랍니다.



사과나무의 성장과정을
 따라 그림을 이어볼까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만들어보아요!



03.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이야기

노랗게 물드는 가을에 떠오르는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은행나무
 예요.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심었다는 이야
 기와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지팡이가 나무로 자랐다는 이야기도 전해
 지고 있는 이 나무는 중요성을 인정 받고 조선 세종 때 벼슬도 받은 아주 소중한 나무랍니다.



"은행나무, 함께 알아보아요"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살았나요?

* 모든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열린다?

은행나무의 잎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은행나무는 양평 용문사에 있다?

*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어요!

04. 보은 속리 정이품송 이야기

조선시대 7대 임금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였어요. 세조의 가마가 소나무 가지 끝에
 걸려 "가마가 걸린다." 라고 말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세조의 행차를 도왔습니다.
 이에 감동한 세조는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이품의 벼슬을 내렸고 그 소나무는
 지금의 보은 속리 정이품송이 되었답니다.

내가 왕이라면, 어떤 나무에게 상을 줄까요?

상

나무 이름: _____

이유: _____

소나무의 잎은
 몇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